

## 시대와 함께 노래한 한국 가곡의 역사

시대적 배경		작곡자	곡명
한국 가곡 태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찬송가와 외국 민요의 영향을 받은 가곡</li> <li>식민지 시대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는 가곡</li> </ul>	1920년대	홍난파 '봉선화'
		~	박태준 '동무 생각'
		1940년대	현제명 '그 집 앞'
		조두남 '선구자'	
한국 가곡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애환이 담긴 가곡</li> <li>아름다운 시에 서정적인 선율을 작곡한 서정 가곡과 당시 현대기법을 접목시켜 예술성을 높인 현대 가곡이 공존한 시대</li> <li>민요나 판소리 등을 가곡으로 승화시키려는 민요풍 가곡</li> </ul>	1950년대	변훈 '명태'
		~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1970년대	장일남 '비목'
		백병동 '빠알간 석류'	
전인평 '화초장 타령'			
한국 가곡 전성기 ▼ 한국 가곡 침체기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대에는 가곡의 전성기였으나 1990년대 힙합과 발라드 가수가 등장하며 대중음악 계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침체기가 찾아옴</li> <li>현재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가곡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li> </ul>	1980년대	김호근 '눈'
~	윤학준 '마중'		
현재	최진 '시간에 기대어'		

### 감상 경험 공유 예시

#### 감상 정보

감상곡	'내 영혼 바람 되어'
작곡가	김호근
연주자	성악인들과 음악인 147명
지휘	이종진
반주	정호정(피아노)
연주회	2014년 5월 6일 스칼라티움 예식장
감상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De3ek_LyNU">https://www.youtube.com/watch?v=kDe3ek_LyNU</a>

작곡가 김호근의 다른 곡 중 세월호 추모곡이라고도 불리는 '내 영혼 바람 되어'를 선택해 감상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작곡가가 직접 번역해 가사를 붙였다고 하는데, 첫 부분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를 직역하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요. 난 거기에 없어요. 잠들지 않았

어요.'인데 무덤이라는 시어가 너무 무거운 단어라 생각 되어 시적 상징과 비유를 동원해 그곳에서 가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울지마요.',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고.'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 이 곡은 세월호 참사 후 성악가와 음악가들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내 영혼 바람 되어'를 합창하면서 세월호 추모곡이 되었다고 한다.

유튜브에 공개된 합창 장면으로 감상했는데 가사에 따라 표현되는 음의 높낮이 및 셈여림 그리고 빠르기 등의 선율의 흐름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이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팠던 과거의 일까지도 위로 받는 느낌을 받았다.

#### 기억에 남는 가사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요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요